

국가 위기대응체제 본격 가동

중기부, 정책자금 5580억 추가 긴급 지원 일본 관련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500억 편성 시설투자기업은 지원한도 60억 → 100억으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은 정부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한 정책자금 5,580억원을 추가로 긴급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책자금 5,580억원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포함한 1,000억, 시설투자기업 지원자금 3,000억,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자금 1,000억, 강원도 산불 등 재해피해기업

지원자금 580억 등이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1,000억원에는 소재·부품기업의 설비지원자금 300억과 제조기술의 국산화·상용화 지원자금 200억,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수출규제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8월 9일 정책자금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적용할 계

획인데, 시설자금은 기업당 용자한도가 기존 60억에서 100억으로 확대됐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는 일본 관련으로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거나, 수출규제에 따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생산차질로 거리가 감소한 협력 중소기업, 최근 1년간 일본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중 일본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우선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한 기업이었으나, 일본 관련기업은 이 규정도 적용받지 않게 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김광재 청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따라 현재 국가적인 위기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며, "정부는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술 자립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최아이 주무관(063-210-6483)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올해 추석 성수품 물가 대체로 안정

차례상 차림비용 전년대비 전통시장 0.7% · 대형유통업체 3.4% 내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사장 이병호)가 조사한 올해 추석차례상 차림비용은 전통시장 22만8632원, 대형유통업체 31만5905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0.7%, 3.4% 하락하여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 기준,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하여 전국 19개 지역의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 28개 품목 중 전년보다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전통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모두 각각 17개이며, 상승

한 품목은 각각 11개로 하락한 품목이 상승한 품목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무·배추·시금치 등 채소류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출하시기가 아직 이른 배와 생산량이 감소한 쌀 및 쌀가공품은 가격이 상승했다. aT 유명권 유통정보부장은 "추석을 앞두고 가계의 알뜰소비를 돕기 위해 앞으로 29일과 9월 5일, 두 차례 더 추석성수품 구입비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aT가 제공하는 알뜰소비 정보를 활용하여 올 추석에도 합리적인 명절음식 구매계획을 세워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석차례상 구입비용의 상세정보 및 관련자료는 aT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www.kamis.or.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직거래장터 등 오프라인장터 정보는 바로정보 홈페이지(www.baroinfo.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27일까지 '1년에 단 한 번, 와코루 특집전'을 진행한다.

롯데백 전주점, '1년에 단 한 번, 와코루 특집전'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조환섭)은 오늘부터 27일까지 6층 Event Hall에서 '1년에 단 한 번, 와코루 특집전'을 진행한다. '당신의 빛나는 품매를 한층 더 아름답게!' 화려함과 기능을 겸비한 와코루 란제리 행사에서는 여성 브래지어, 팬티, 울인원, 잠옷 등을 40~6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한, 와코루 브래지어 30,000원~80,000원, 팬티 9,000원~60,000원, 파자마는 15,000원~130,000원 등 다양

한 상품을 선보이게 된다. 아울러, 행사기간 중 20/30만원 이상 구매 시 모바일 롯데상품권 5%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란제리 김현숙 선임파트리더는 "와코루를 선호하는 고객들에게 합리적 가격에 숙곳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롯데백화점 전주점 장성근 홍보실장(063-289-3739)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우수 농산물 이마트 특판 개최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전북도, (주)이마트(대표이사 이갑수)와 공동으로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이마트 전국 50개 매장에서 전라북도 우수 농산물 특별 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마트 특별 판매전은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공동으로 전북 농산물 판매 확대를 목적으로 이마트와 함께 2018년부터 4년째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캠벨포도, 대추방울토마토, 배, 복숭아, 메론 등 재철 농산물을 이마트 매출 상위 전국 50개 매장에

서 동시 판매 된다. 또한 개장 첫날인 22일에는 이마트 전주점에서 캠벨포도, 고구마를 100개씩 한정 반값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전라북도도 전북농협은 이번 행사에서 추석 명절 상품 판매를 통해 전북 농산물 판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사과·배 선물세트를 중점 판매하기 위하여 한기위 큰 장터, 산락농정장터 등을 개최하고, 수도권 및 영호남권 등에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지방조달청, 지역 우수조달업체 표창 전수

김제시에 소재한 아이원(대표 박종목)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통해, 조달 등록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등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조달청장 표창자에 선정됐다 고 22일 밝혔다. 선정된 아이원은 사무용의자 전문

제조업체로서 환경인증, 디자인등록, 특허 출원 등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 및 성능향상에 매진했으며, 단체표준인증을 통한 품질향상에도 기여하여 가구 산업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했다. /김영태 기자

'농업기술명인' 브랜드 가치 활용해 오픈마켓 공략

농촌진흥청, 고품질 농산물 수요 반영해 마케팅 지원방안 논의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고품질(프리미엄)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하 농업기술명인)'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 오픈마켓(인터넷 열린 시장) 진출을 모색한다. 그 일환으로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오늘 전주의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리는 '2019 하반기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공동연수에 참석해 농업기술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이 브랜드 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농업기술명인'은 최고 수준의 농업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을 의미한다. 오늘 공동연수에는 국내 오픈 마켓

유통 관계자와 대학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도 참석해 농업기술명인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프리미엄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기술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인지도 향상과 고품질 농산물 시장에서 브랜드 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수원외국인금융센터 이전... 접근성 향상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오는 24일 고객 편의성을 위해 기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87, 2층에 위치해 있던 영업장을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 37, KT&G빌딩 5층으로 옮긴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4월 수원지점으로 개점하여 2018년 1월 수원외국인금융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후 외국인 특화 점포로 태국·캄보디아·필리핀 등 현지직원을 채용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금융업무 처리를 돕고 있는 수원외국인금융센터는 외국 인근로자 특성상 평일에 금융 업무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맞춰 주말에도 영업을 한다. 또한 주말에 각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 한국어 강좌, 노

무 및 구직 관련 상담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 프로그램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각 국가별 SNS를 통해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준비 중이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지점 이전을 통해 수원역과 가까워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내 교통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접근성 향상으로 외국인금융 서비스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매산시장 내 외국인 전용 식당, 핸드폰 판매점 등 외국인 상점이 밀집되어 있어 많은 외국인 고객들의 편의 제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 모바일 홈페이지 간단조회 오픈

카카오페이 인증 거쳐 이용 가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이 22일부터 모바일 홈페이지 간단조회 및 문자 자동상담 서비스를 오픈했다. 국민연금 모바일 홈페이지(m.nps.or.kr) 간단조회 서비스는 "예상 노령연금, 가입내역,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등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카카오페이 인증 절차를 거쳐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고객이 직접 질문을 입력하는 대신 궁금해하는 내용의 카테고리 선택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기반의

문자 자동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향후 음성상담 내용까지 빅데이터를 활용·수집·분석하여 지능형 개인 맞춤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신규 서비스 홍보를 위해 22일부터 9월 5일까지 새롭게 오픈된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정보화본부 김대순 본부장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를 손 안에서 손쉽게 검색하고, 신고·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